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與 반발 불참

취직 전 학자금 상환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한 이자 면제 국힘 "포퓰리즘" 비판... 민주당 "월 1만원이 포퓰리즘인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의원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 미진화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한편,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전조절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전조절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전조절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간호법 공약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방소멸 해결 핵심은 농업 진흥"

안성 농가 방문... 농촌 기본소득 등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를 찾아 직접 모내기했다.

밀짚모자를 쓴 이 대표는 혼자서 이앙기를 몰며 모를 심었다.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귀농한 청년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상대적으로 귀농인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농촌 진흥과 농업 진흥, 농민 지원"이라며 "대농(大農) 중심의 농촌 지원 정책을 소농(小農) 중심으로 전환해 농촌 인구의 유입

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상징적 정책'인 기본소득을 활용한 농가 지원 대책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농가당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1인당 농촌 기본소득을 주면 4인 가족에게 연간 수백만 원을 줄 수 있다"며 "그렇게 안정적, 영구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면 (농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년 농업인들을 향해 "결국 농민이 자기들 권익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 요구도 하고 책임도 묻는 게 진짜 농업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선거제 개편 후속 논의 촉구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위원회회의 소위원회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모임은 전원위 소위 구성을 통해 지난달 10~13일 백가쟁명 방식으로 이뤄진 전원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모임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했다.

조혜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전이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전 오염수 시료 채취·원천자료 확보해야"

민중 투기 저지 대책위 기자회견... 후쿠시마 시찰단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정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 분석하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한 만큼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의 (오염수) 처리 전후 비교자료 전체를 확보하고 가동 능력도 확인하라"며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장기간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투기 외 원전 오염수 처리 대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식품의 위험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실무회의를 전후해 일본 측의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에 담긴 시설과 정보를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찰단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미루지 말라"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성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16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외국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실현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특히 윤

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5월 정신 계승을 강조해왔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취임 후 지난 1년간 개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5·18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땅하다"며 "5·18 43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